



# 협회, 2007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개최

제4대 회장으로 백종진 한글과컴퓨터 대표 취임



협회(회장 백종진)는 지난 2월 28일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에서 '200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신임회장 추대 및 신규임원단 구성, 7대 실천과제가 주축이 된 <2007년 벤처기업협회 비전>과 사업계획 등을 발표했다.

먼저 협회는 <2007 벤처기업협회 비전>인 “한국경제 제2의 도약을 견인하는 기술혁신의 심장의 되자”를 선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7대 실천과제 ▶한국 벤처의 세계화 지원 ▶벤처문화의 사회적 확산 ▶한국벤처정책연구소 설립 ▶사회공헌벤처기업상 제정 ▶회원사 네트워킹 강화 ▶회원전용 기술금융 신설 ▶벤처CEO 아카데미 운영을 추진해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신임 협회장으로 선출된 백종진 회장은 7대 과제를 밝히며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벤처기업인의 권익보호와 벤처산업이 비상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2007년도 사업계획도 발표했다. 올해는 현재의 국내 벤처산업이 연매출 100조 원 규모로 성장하기까지 버팀목 역할을 해

- 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임인배 위원장
- 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룡 위원장
- ③ 중소기업청 이현재 청장
- ④ 벤처기업협회의 힘찬 화이팅
- ⑤ 협회의 새 수장 백종진 협회장
- ⑥ 한사랑벤처릴레이운동기금 전달



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의 시효가 만료되는 해이기에 <벤처법> 연장과 더불어 회수시장의 확대를 위한 M&A시장 활성화 등 협회의 역량을 한데 집중하여 벤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과제 발굴, 대정부 정책건의 등의 역할을 변함없이 담당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협회는 ▲벤처기업에 대한 조사·연구 ▲벤처의 사회적 책임 역량 강화 ▲벤처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확대 ▲벤처기업 홍보활동 강화 ▲벤처기업경영재기지원제도 개선안 본격실시 ▲벤처기업 마케팅 지원활동 강화 ▲벤처기업의 핵심역량 강화 ▲지방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등 8개 항목에 걸친 사업들을 적극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벤처 관련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한 ▲<벤처코리아2007>와 INKE 총회 등도 연중행사로 추진한다. 벤처기업인의 경영교육과정도 최고경영자과정, 중간관리자과정 등으로 세분화하여 집중 교육할 예정이다. 그밖에 벤처기업의 신뢰회복 및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벤처기업 윤리경영 인증제도가 상반기 중 시행하는 등 업계의 신뢰회복을 통한 투명경영 실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협회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했다. 신임 협회장 한글과컴퓨터 백종진 회장을 비롯해 회장단 19명, 이사 27명 등 총 4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장홍순 전 회장, 조현정 전 회장, 변대규 휴맥스 사장을 협회 고문으로 선출하였다. 이날 행사는 1부 정기총회 및 2부 회장 이취임식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는 2006년도 감사와 사업실적, 결산보고 및 2007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이 진행되었다. 이어진 2부 회장 이취임식에서는 조현정 전회장의 이임사와 함께 협회기가 백종진 신임회장에게로 전달되었고 백회장의 취임사가 이어졌다. 또한 전 2,3대 회장을 역임한 장홍순, 조현정 회장에게 감사패가 수여 되었으며, 지난 1년간 벤처기업 임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한 한사랑벤처릴레이운동의 모금액 2천6백만 원이 태화기독교복지관 및 천주교 성폭력 상담소로 전달되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임인배 위원,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염홍철 위원장, 성경룡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이현재 중소기업청 청장, 허범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 협회의 새로운 1년을 격려했다.